

광주 '창조행정' 잇따른 성과 ... 전남 '친환경 농업' 미래 열어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은 광주시의 민선 5기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8일 개방 행사 때 무등산 정상 3봉 중 하나인 지왕봉을 찾는 등산객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도는 지난 2011년 사상 처음으로 400억달러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민선 5기 들어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 화물 이 가득 쌓인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U대회선수촌 갈등 해결·2순환도 勝訴 호평 어등산 개발·군용 비행장 이전 등 해결해야

민선 5기 광주시는 이명박 정부의 '호남 확대'속에서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특히 창조행정을 행정목표로 정하고 타 지역에서 시도하지 않은 다양한 행정을 전국 최초로 시도해 성공을 이끌어 낸 점은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무등산 정상 근부대 이전 등은 해결 과제다.

◇창조행정 성과 이어져=광주시의 민선 5기 3년은 창조행정이 핵심이다. 광주는 전국 최초로 광주시민위원회를 제정하고 인권지표를 개발해 민주·인권·평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 태어났다. 시는 또 광주 U대회 선수촌을 조성하면서 세계 스포츠 대회 사상 최초로 노후 아파트(화정동 주공) 재건축 방식으로 개발, 도심 공동화 문제 등을 해결해 국내는 물론 세계 스포츠 대회 관계자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특히 '헬세머는 하마'로 불리는 '제 2순환 도로 1구간 행정 소송'의 첫 승소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창조행정의 백미로 꼽힌다.

시는 이와 함께 탄기제도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 유도도 공정한 입찰행정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제주시 등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가 됐다.

◇소비도시에서 수출형 생산도시로=광주는 지난해 수출 141억 달러를 달성해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거뒀다. 반면 광주를 앞섰던 부산의 수출액은 광주보다 6억달러가 적은 135억달러에 머물렀다. 또 317개 기업 4조1051억원의 투자유치와 1만806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민선시대 최대의 투자

유치성과를 거뒀다. ◇지역 현안 해결 주력=2년 6개월간 중단됐던 문화전당 건립공사를 재개해 6월 현재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 광주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새 야구장을 최첨단 개방형·친환경 야구장을 건립중이며, 광주시장과 시민과 민간의 날을 정례화해 622건의 민원 중 347건을 해결했다.

◇대형 국제행사 유치로 국제도시 발판 마련=민선 5기 들어 세계한상대회와 JCI 아시아-태평양 대회 등 굵직한 국제 대회 14개를 유치해 이 중 5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시는 또 세계 200개국 2만여명이 참여하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제2컨벤션센터를 준공했으며, 40만 자원봉사자를 육성중이다.

◇5·18 전국화·세계화 계기 마련=시는 민선 5기 2년째인 지난 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역사바로 세우기 운동을 통해 역사 왜곡·훼손 세력을 고소·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에 나서고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민선 5기 들어 무등산 정상을 45년만에 개방한 데 이어 무등산이 지난해 12월 27일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무등산이 국립공원 지정되면서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은 해결 과제=민선 5기 남은 1년동안 93개의 공약을 차질없

이 마무리하는 게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또 광동 군현현장과 광주 군용비행장,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및 방송·통신시설 통합 등도 해결해야할 숙원사업이다. 지지부진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도 조속히 추진해야할 사업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축산·수산까지 친환경 ... 귀농·귀촌 이어져 F1 적자탈피·J프로젝트 조성 등 과제 산적

민선 5기 전남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역점사업인 친환경 농업이 정착되고, 해마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F1 대회의 적자 탈피와 서남해안관광단지 조성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친환경 농업의 진화=민선 5기 전남도의 화두는 단연 '친환경 농업'이었다. 전남도는 최근 2년간 수도권 527개 학교에 1만8739t의 친환경 쌀을 급식으로 공급해 466억원,

대도시에 친환경농산물 향토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98개소를 개설해 지난해 300억원의 매출을 각각 올렸다. 친환경 농업이 정착할 수 있는 탄탄한 유통 구조를 만든 셈이다.

◇'친환경'은 농업뿐 아니라 축산으로까지 확장됐다. 전남도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육성해 3621호(전국의 39%)가 친환경 축산 인증을 받았다. 전남도가 추진한 농업의 유통 구조 개선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남도는 농수산물의 품목별 조직·기업화를 추진해 지금까지 1만1229농가가 출자한 시·군 유통회사 6개소와 17개의 품목별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들 유통회사는 지난해 211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401명의 새 일자리를 창출했다.

◇찾아 오는 농촌 마을=친환경 농업의 성공은 귀농과 귀촌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도는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라 2008년부터 도시민의 귀농·귀촌 지원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해 지금까지 1만 300명이 도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124개(1561동)의 행복마을과 48개(1587동)의 전원마을, 2개의 농어촌 뉴타운(400동)을 조성하는 등 귀농·귀촌인의 정주 기반 조성과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침체 속 수출 증가=전남도는 지난 2011년 사상 처음으로 400억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한데 이어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큰 성과다. 전남지역

수출은 2004년 100억 달러를 넘긴 이후 2007년 200억 달러, 2010년 300억 달러, 2011년 400억 달러, 2012년 419억300만 달러로 늘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24%로 전국 평균(14.6%)을 훨씬 웃돌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남의 수출 증가는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한 37억1700만달러였다. 전남도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450억 달러로 잡았다.

F1 적자 탈피 과제도 산적=누적 적자가 1700억여원에 달하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수주 개선과 다양한 투자자를 찾아 못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단지 조성(J프로젝트) 조성 등 남은 과제도 많다.

전남도는 F1 운영사인 FOM(포뮬러원 매니저먼트)과 500억원에 달하는 F1 개최 권리를 쟁기 위해 재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수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F1 대회가 열리는 않는 기간에는 영암 서킷을 기업이나 경기 단체에 빌려주어 임대 수입을 올려야 하지만 국내에 자동차경주장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지구의 실시계획을 승인해 분개도에 오른 J프로젝트도 시급히 투자자를 찾아야 한다. 최근 전남도가 중국 기업과 15억달러에 달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한대씩 치고 받고 ... 일났다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올 여름휴가는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떠나세요!

편안한 무안출발 전세기 상품

마카오여행

오감만족, 마카오 & 홍콩

7월 27일, 30일, 8월 2일, 5일 2박 4일(총 4회)

세부여행

천천히 휴양지 필리핀 세부

8월 7일 ~ 8월 17일(총 4회)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광주/전남 기획상품

장주출발 [광주·청주 수송비 포함] 백두산 4일 / 5일

출발일 3박 4일 - 7월 13일
4박 5일 - 8월 20일

7월 13일 1,180,000원(백두+임대)
8월 20일 1,280,000원(백두+세부+임대)

무안출발 북경 299 특가!

출발일 7월 9일, 16일(화)
3박 4일 299,000원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세정투어여행사 (삼주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여로관광여행사 (순천 궁전예식장 건너편)	061)742-1270
남해여행사 (목포 한사랑병원)	061)287-4100

2013 F/W 하니문화어 최대 50만원 할인

예약기간 2013.6.1-6.30 출발기간 2013.9.1-2014.2.28

[사전예약할인]상품에 한해 할인 적용, 상품제목 확인 기간 중 예약 커플(2인 1쌍)에 최대 50만원 할인 제공

[CHPF05-NX1] *스텔라리조트* 마카오/홍콩 4일 899,000원 ~	[CHPF07-NX1] *오룡방바스* 마카오/홍콩/심천 4일 949,000원 ~
[CHPF05-NXA] *셀라르호 호텔+마카오의 일광관광* 마카오/홍콩 4일 1,099,000원 ~	[CHPF05-NXC] *NO TIP+홍콩360+사자1로 투어* 마카오/홍콩 4일 1,099,000원 ~

[APPF01-Z2] 세부 4일/5일 899,000원 ~	[APPF01-Z2] 세부 4일/5일 1,099,000원 ~
[APPF02-Z2] 세부 4일/5일 999,000원 ~	[APPF02-Z2] 세부 4일/5일 1,199,000원 ~

집중모객

[JKP764-BKF] 특급 세키야호텔+북큐슈 부린헤리 3박4일 6/15~7/17(총 4회) 199,000원

국내 골프 상품

[AKGV57] 36H+순천 파인힐스 골프장 185,000원 ~	[AKGV25] 36H+담양 다이내스티코골프장 259,000원 ~
-------------------------------------	--------------------------------------